

◇전이성 폐암의 외과적 치료

김승철, 김영태, 성숙환, 김주현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배경 및 목적 : 폐에는 원발성 폐암 뿐만 아니라 타 장기에서부터의 전이성 폐암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비록 원격성 폐전이라고 할지라도 원발 장기의 악성 종양이 근치되었으면서 폐 이외의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고 폐에 전이된 종양의 완전 절제가 가능하고 절제후의 폐기능이 적절하다면 전이성 폐암의 절제 후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

방법 : 1981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전이성 폐암으로 개흉 수술을 시행하였던 74명의 환자 중 절제가 불가능하여 시험적 개흉술 만 실시한 5례를 제외한 69명 [절제율 93.1%]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및 성별 분포, disease free interval, 원발 장기의 조직 소견, 수술 방법, 폐 절절의 갯수, 술 후 합병증 및 생존율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 연령 분포는 44.4 ± 18.9 세 [12 - 86 세]이었고 남녀 비율은 42 : 27 으로 남자가 많았다. disease free interval은 35.0 ± 31.7 개월 [1 - 121 개월]이었다. 원발 장기의 조직 소견을 보면 골육종이 13례로 가장 많았고 직장 및 결장암이 9례, 신장암이 9례, 연부 조직 육종이 9례, 유방암이 3례, 비인후암이 3례, 타액선암이 3례, 기타 20례 있었다. 1회 폐전이가 61례, 2회 폐전이가 5례, 3회 폐전이가 3례있었다. 수술시 절개 방법은 일측성 후측방 개흉술이 62례로 가장 많았으며 정중앙 흉골 절개술이 8례, 흉강경 수술이 4례, 기타 6례 있었다. 절제 방법은 썬기 절제술이 50례, 단일 폐엽 절제술이 16례, 단일 폐엽 절제술과 썬기 절제술을 같이 시행한 경우가 6례 있었고 기타 8례 있었다. 절제된 폐절절의 수를 보면 2.4 ± 2.3 개 [1 - 11 개]였으며 1개가 42례로 가장 많았다. 폐절제수를 보면 1.9 ± 1.7 개 [1 - 9 개]였으며 1개가 52례로 역시 제일 많았다. 수술 후 조기 사망례는 없었으며 수술 후 합병증은 7일이상 계속 공기누출이 있었던 경우가 3례 있었으나 3례 모두 경쾌퇴원하였고 이외의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수술 후 추적 기간은 31.6 ± 28.6 개월 [1 - 144개월]이었으며 수술 후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전체가 66개월, 골육종의 경우 30.5개월이었고 수술 후 3년 생존율은 전체가 64.9%, 골육종의 경우 40 %이었다.

결론 : 전이성 폐암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과 수술 후 생존율을 고려해 볼 때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보다 수술적 절제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책임저자:성숙환(서울대학교병원) 발표자:김승철(서울대학교병원)